

대한 양계협회

소식

'97한국양계박람회 성료



본회 및 (사)한국위생계육협회, (사)한국축산 시설환경기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종합전시장 (KOEX)에서 주관한 '97한국양계박람회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KOEX 본관 1층 태평양관에서 12개국, 129개업체(398개 품목)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 기간중 전시장에 8만여명의 많은 참관인들이 다녀갔는데 우천중에도 불구하고

고 생산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양계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생산자들을 위한 전시행사와 학술심포지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한 홍보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첫날인 24일에는 개막행사로 정시채 농림부장관 및 관계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 비둘기 날리기, 테이프커팅 행사가 펼쳐졌으며 비둘기를 통해 날려보낸 인사들의 서명리본은 전체가 회수되어 홍보관에 전시되어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외에 제9회 달걀닭고기 요리솜씨대회, 제7회 달걀닭고기 소비홍보 디자인 현상공모 시상식, 제3회 어린이 병아리 장학금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25일에는 4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술심포지움이 "환경친화적 첨단 양계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양계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또한 전일에 걸쳐 투계시범대회가 세차레씩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투계의 역사와 싸움 방식 등이 소개되어 흥미를 북돋웠다. 한편 KBS-TV "6시내고향" 등 각 방송사에서 취재의 열기가 높아 홍보효과를 높였다. 본 박람회를 위해 도와주신 협찬업체 명단을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본문 46페이지)

계란 고시가격 현실화 조치 7월 1일부터 현장 계산서 전면 실시키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와 한국계란유통협의회(회장 김한조)는 계속되는 계란유통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후장기 제도의 근절을 막자는데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를 교

환하였다.

합의각서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의회는 현재 채란업계에 만연되고 있는 선납품 후계산(일명 후장기)이라는 고질적인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상거래를 통하여 서로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시장시세에 알맞는 가격으로 현장에서 계산한다.
2. 시장가격은 생산자와 유통업자 실무대표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3. 농장적용 가격은 상품의 품질과 농장주와 상인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위로 약간의 차등(2원 이내)을 둘 수 있다.
4. 1997년 6월말까지 현장계산서 발부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하며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5. 현장계산서 발부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은 상호간 연구하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
6.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과 한국계란유통협회 유통위원들은 위의 사항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7. 위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만약 위반 사실이 밝혀질 때는 상대방이 취하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태국 양계관계자 본회 방문



태국 상무성 수출진흥 관계자, 농산부 수출국 관계자 및 계육생산 및 수출업체 대표로 구성된 9명의 태국 양계 사업시찰단이 지난 18일 본회를 방문, 한국양계산업 현황을 듣고 상호 의견교환을 가졌다.

지난 16~20일 동안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들은 17일 국내 수입업자 및 업계 대표들을 초청하여 태국의 육계산업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주)하림 등 계열업체를 방문하여 국내 육계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9회 전국 달걀·닭고기 요리 솜씨대회 개최



'97한국양계박람회 일환으로 본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주관한 제9회 전국 달걀·닭고기 요리솜씨대회가 지난 25일 KOEX 한국양계박람회 대회장에서 참가자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신현옥 주부가 "영양닭 김치조림" 요리로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그 외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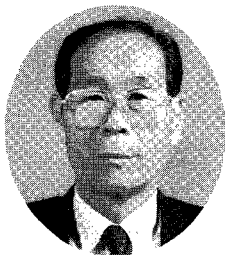
제9회 전국 달걀·닭고기 요리 솜씨대회 수상자 명단

상별	지역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요리명
최우수상	서울 강남	신현옥	여	46	주부	영양달 김치조림
		강원 춘천	이정순	여	51	주부
우수상	경기 안양	조용희	여	39	주부	한방달 보양찜
		서울 양천	이정애	여	47	주부
장려상	대구 남구	양지혜	여	22	학생	달 색쌈
	서울 강서	오성순	여	42	주부	오곡 달찜
	서울 종로	조혜자	여	55	주부	달다리 고추장찜
	서울 송파	신송자	여	53	주부	페백달
	서울영등포	여훈구	남	28	조리사	아일랜드 달요리
	경기 수원	이용재	남	26	조리사	Curry sauce 닭고기포차
	인천 남동	한병렬	남	36	조리사	"Le Log viu"(리코뱅)
특별상	서울 관악	정학기	남	31	조리사	치킨 수육탕
	충북 충주	고종철	남	52	조리사	달 특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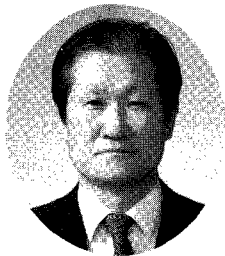
회의실에서 양계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부문, 봉사부문, 학술연구부문, 특별부문 등 각각 4개부문에 걸쳐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20년 이상 양계업에 종사하면서 양계인들에게 타의 모범이 되어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양계인 4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는데 경영부문에는 박승봉 일죽농장 대표, 봉사부문에는 류종래 대구경북양계축협 조합장, 학술연구부문에는 한성옥 충남대 축산학과 교수, 특별부문에는 황인옥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고문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수상자들에게는 기념패와 50만원 상당의 순금매달이 봉정되었다.(관련기사 70페이지)

양계대상 시상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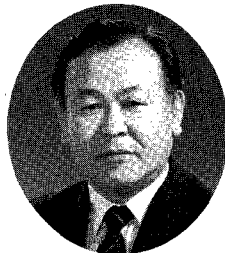
경영부문, 봉사부문, 학술연구부문, 특별부문 각각 4개 부문



△ 박승봉 사장(경영)



△ 류종래 조합장(봉사)



△ 한성옥 교수(학술연구)



△ 황인옥 고문(특별)

'97한국양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양계대상 시상식이 지난 25일 KOEX 4층 국제

제1차 검정위원회 개최

제49회 육용계 검정 최종성적 검토



제1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96 제5차 검정위원회 회의록 요약보고,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제29회 육용계 검정 최종성적 검토, 제30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 검토, 종계일반검정 심의가 있었다.